

전자점자악보의 현황에 입각한 DB구축의 필요성 연구

정지영*, 이미애**

한세대학교 예술학부*,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Necessity of DB Classification for Digital Braille Music

Jiyoung Jung*, Mee-Ae Lee**

Dept. of Music, Hansei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 약 점자악보는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을 배우고 즐길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교육적 자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점자악보의 제작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신청제작 할 수 있으며 점자악보제작 및 교육에 특성화 된 시각장애인음악 재활센터에서 가장 많이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국의 지역별 점자도서관은 점자악보의 분류조차 되어 있지 않고 소장하는 점자악보의 수도 다른 점자도서관에 비해 비중이 낮다. 본 연구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점자악보 제작과 그 현황을 파악하여 점자악보의 제작의 정확성과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악보를 사용함에 있어 효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 지역별 점자도서관의 점자도서관의 수와 그 안에서의 점자악보의 비중을 알아보고 전자점자악보의 필요성과 DB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시각장애인들의 음악교육 및 예술활동을 위한 전자점자악보의 활성화와 체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바탕으로 더 좋은 문화적, 예술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주제어 : 점자악보, 전자점자악보, 문화복지, 음악접역, 시각장애인, 당사자주의

Abstract Music Braille is essential and academic materials for the blind to learn and enjoy music. In Korea,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is the public institution for the manufacture digital music braille by the request and the center of music rehabilitation the disabled also make the digital music braille on a welfare level. However, most of braille libraries in Korea do have little music braille compared to other braille books. This paper reports the current situations how braille libraries including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contain braille books, music brailles and digital music brailles to find out that the blinds can be provided exact informations about music brailles and digital music brailles so they can learn music with the right materials such as music brailles. In conclusion, the construction of Database for the digital music brailles is required and necessary for the blind to have better activities of music from the welfare and artistic point of view.

Key Words : Music Braille, Digital Music Braille, Cultural welfare, Music Brailization, the blind, nothing about us without us

Received 15 May 2017, Revised 26 June 2017
Accepted 20 July 2017, Published 28 July 2017
Corresponding Author: Mee-Ae Lee(Hansei University)
Email: meeae@hansei.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인지력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언어와 문자는 인지를 통해 얻은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 수단으로써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한다[1]. 시각장애인은 문자를 볼 수 없지만 점자의 발명은 비록 속도에 있어서 묵독이나 청독에 비해 현저하게 느린 단점에도 불구하고 타인과의 문자문화 향유를 가능하게 하였다[2].

점역용 소프트웨어 개발, 점자정보단말기 개발 등, IT 기술의 발전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문자정보 생활은 한층 용이해졌고 점자가 아니더라도 녹음파일을 듣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한계를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3]. 시각장애인들의 점자도서에 대한 접근성은 스스로 읽고 쓰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주고 독립적 생활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고용과 사회참여에 있어 균등기회를 제공하는데 공헌해 왔다[4].

점자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공유 수단의 하나이듯 점자악보는 음악이라는 장르에 있어서의 관련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고 전달하는 의사소통전달방식의 하나이다. 물론 악보 없이 남이 연주하는 것을 따라 하면서도 음악을 충분히 혼자서 배우고 즐길 수 있지만 타인과 공유하려고 할 때는 정보전달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서 음악교육은 장애인이든 아니든 악보를 통해 배우고 익히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듣고 따라하면서 익히게 될 때 누구의 것을 듣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연주자들의 편곡이나 즉흥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감 없이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악보가 1차 자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음악교육이 질적으로 성장할 확률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시각장애인들의 음악교육에 있어서 악보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고 이로서, 평론서, 기법관련서 등도 배워야 하는데 이러한 음악교육 관련 서적을 보면 악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활자를 포함한 설명이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의 음악교육을 위한 점자악보 구비는 악보뿐만 아니라 음악관련 점자도서를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점자도서와 점자악보는 제작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간,

인력, 비용 등이 소요된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민간영역의 역할은 미미하고 선진국의 경우 국가·사회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점역작업에 개입하여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기한 통합관리시스템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무엇보다 “점자는 배우기에 너무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점자의 활용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5]. 그 원인으로 첫째는 점자를 배워서 활용하는 시각장애인의 비율이 높지 않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일주일에 세 번 두 시간씩 총 여섯 시간의 점자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6], 이러한 점자교육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각장애인의 약 22퍼센트만이 점자를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점자의 활용도가 낮은 두 번째 이유로는 점자로 읽는 속도가 묵독이나 청독보다 현저하게 느리기 때문이다[8].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들이 특정 도서나 간행물, 악보가 필요해도 점역되어 있지 않을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주문제작하여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때로는 비용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 다행히 점역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국 점자도서관에 산재되어 보유되어 있어도 해당 자료를 필요한 때에 손에 넣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8]. 인터넷의 발달로 잠재적 수요자는 광통신 속도로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자도서 및 점자악보 통합관리시스템 또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악보 출판 및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생산되는 것을 볼 때 점자악보의 생산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 점자악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권리 차원에서라도 수정되어야 한다. 인간은 길들여지기보다는 스스로 교육되어지는 존재이고 스스로 교육되어지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피교육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교육권의 주체자로 적극적으로 교육과정 선택결정에 참여하여 1세대 음악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 당사자주의가 실행되어야 하고 점자악보의 구비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악교육의 질을 높여 음악적 역량증진을 위한 기회를 가지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점자악보의 접근성을 높여 필요즉응의 원칙에 따라 점자악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구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을 배우고 즐기고 나아가 타인과 공유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예술 활동과 문화생활 향유를 통해 고용 및 사회참여의 균등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음악교육의 기회가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들의 음악교육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점자악보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 연구문제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문제는 시각장애인들이 악보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악보를 구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연구문제는 우리나라의 점자악보 보유현황을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비롯한 점자도서관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음악교육에 필요한 점자악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전자점자악보 DB 구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전자점자악보의 제작과 이용

전자점자악보를 구하고자 할 때는 우선, 점자악보가 필요한 시각장애인이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전자점자악보의 소재를 파악한 뒤 파일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에 신청을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대체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점자악보, 테이지자료(DAISY), 전자점자자료, 화면해설영상자료, 수화영상도서자료, 자막영상자료, 시각원문자료, 보이스 브라이유(Voice Braille) 자료 등이 현재 제공되고 있는 대체자료의 종류이다.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 해당 자료의 소재가 파악되면 전자나 파일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다.

만약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점자악보나 전자점자악보가 없는 음악작품에 대해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대체자료의 형태로 제작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학업, 업무, 자기계발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 받아 신청자가 원하는 다양한 매체의 대체 방식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작하여 신청자에게 보급하고

있다. 전자점자악보를 포함해 음악교본, 음악이론서, 음악교과용 도서 등 악보가 포함된 모든 저작물도 대체자료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자료들을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취업 준비서, 문제집, 사전류, 연감 및 백서, 통계편람 같은 자료들은 신청이 제한되며 특정강의만을 위한 자료나 낱장 제본도서나 원본의 일부, 지도나 만화 및 화보집과 사행성이나 음란성을 조장하는 자료들은 대체자료로 제작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절판된 자료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지 않는 자료들도 신청이 제한되는데 신청자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때때로 신청 및 제작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은 신청 도서와 음악작품 편수를 합쳐서 기악곡 및 성악곡 악보의 경우 3곡, 총 90페이지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교본 및 악곡집은 200페이지 이내로 1권 그리고 음악관련 도서도 1권으로 700페이지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2014년 7월 이후부터 1인 1회에 5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시각 및 청각장애인과 유관기관만이 신청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신청방법은 2010년 이후부터 홈페이지에서 대체자료 제작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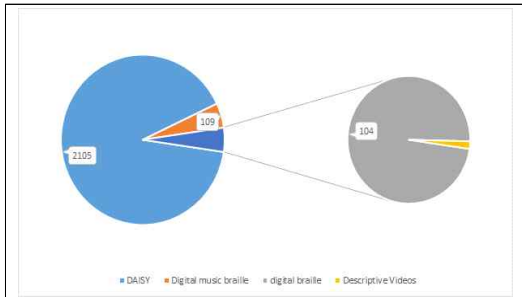
제작된 전자점자악보를 신청자는 파일형태로 시각장애인 전용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다. <Table 1>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보유했던 전자점자악보의 총량을 보여준다. 2013년에서 2013년까지 전자점자악보 보유 수량은 1,495건이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자점자악보가 증가하여 누적 수량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1>에서 보듯이 전자점자악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증가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음악교육에 있어서 악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최근에는 단순히 듣고 따라하는 등의 교수법이 더 많이 사용되고 그 밖의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하여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이러한 음악교육은 쉽게 악보 없이 듣고 음악을 연주하는 시각장애인의 음악적 활동을 장려하고 부담 없이 스스로의 문화적 향유와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음악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고자 할 때는 정확성이라는 음악의 질적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

<Table 1> Annual Amount of Digital Music Braille

year	Total
2016	1,863(+66)
2015	1,797(+101)
2014	1,696(+201)
2003-2013	1,495

(Source: The National Library of the Disab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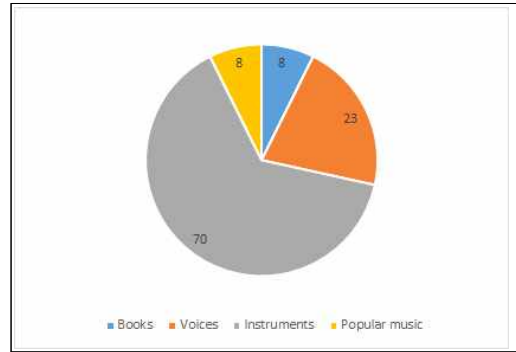
이러한 추세는 대체자료의 신청에도 나타난다. [Fig. 1]은 2016년 한 해 동안의 총 2,320건의 대체자료 신청이 있었다. 신청한 자료의 신청 빈도수를 보면 페이지자료(DAISY)의 신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전자점자자료, 전자점자악보, 화면해설영상자료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페이지자료(DAISY)는 시각장애인이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되는 자료로서 신청자의 대부분이 페이지자료(DAISY)를 신청한 것으로 미루어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듣고 따라하는 음악교수법을 통하여 음악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Fig. 1] Classification of Braille for the Blind

대체자료 신청자의 대다수는 페이지자료(DAISY)를 신청하였지만 전자점자악보 신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록 전체 대체자료 신청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전자점자악보를 신청했던 경우 신청하는 악보의 장르나 분야들을 분석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음악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악보들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Fig. 2]는 2016년 한 해 동안 전자점자악보를 신청한 곡목들을 분류한 것으로 대중음악과 종교음악의 비중보다 전문적인 기악곡을 위한 전자점자악보 제작 신청이 많았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이나 취미예술활동의 일환으로 필요한 신청이라기보다는 체계적인 음악교육 및 전문적인

음악활동의 일환으로 필요한 신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 Classification of Music Braille

국립장애인도서관 외에도 전자점자악보의 제작은 유관기관으로 등록된 각 지역의 도서관 장애인부서와 지역점자도서관, 복지관에서 제작하는 경우가 있다.

도서관을 통하지 않고 시각장애인들이 개인적으로 점역사를 고용하여 악보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및 산하도서관들이 대체자료 신청 사업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기 전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종교단체나 개인적으로 점자악보 제작을 의뢰하여 악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음악점역을 특성화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에서 음악점역사들이 개인적인 신청에 따라 필요한 악보들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3. 전자점자악보 보유현황

전자점자악보 및 음악관련 점자도서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 체계에 맞춰 분류해 놓고 제공하는 도서관은 우리나라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유일하다. 다른 점자도서관들의 경우 점자악보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점자도서 목록 안에서 음악관련 악보자료를 찾을 수 있다. 실로암 복지관을 비롯해서 점자악보를 특성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복지관 등에서도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악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점자악보 및 음악관련 점자자료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2.1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점자악보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전자점자악보의 분류를 하고 있다. 대체자료 신청이 증가하면서 전자점자악보의 보유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전자점자악보로 분류되어진 자료가 2017년 4월 현재 총 2,518부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류 안에는 전자점자악보를 포함하여 음악관련 악기교재 및 전문도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른 유관기관에 보관된 자료들도 있는데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직접 소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 공유하여 자료의 출처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유관기관 자료들을 살펴보면 자료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소재지 표시만 되어 있고 자료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기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국립중앙도서관과 다른 유관기관들과의 정보 공유와 연계가 하드웨어적으로는 구축되어 있다 해도 시각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구하는 데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연계도 중요하지만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기입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활용도는 높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Table 2> Digital Music Braille

Categories	amounts
Digital Music Braille	2,518
Braille Books	50

(Source: The National Library of the Disabled)

<Table 2>에서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점자악보는 총 2,518부이며 이 가운데 76권이 음악관련 도서로 나타났다. 76권을 상세하면 음악관련 교양도서, 음악전문 이론편서, 악기를 위한 교본서 그리고 대중가요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일부 이론편서는 음악사, 음악이론, 대위법 등 음악교육에 필요한 전문도서들도 있었다. 전자점자악보 목록에 있는 음악관련 도서 76부는 그 수량을 볼 때 여전히 음악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음악관련 점자도서로 목록이 되어있는 도서는 총 50권으로서 음악사전류

3권, 음악점자악보 해설서 4권, 음악이론서와 음악사 2권, 한국가곡집이 1권이 소장되어 있다. 특히 가장 비중이 높은 한국 전통음악 악기에 대한 교습서가 8권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음악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습서가 필요하여 점자도서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2.2 경기도립 중앙도서관

경기도립 중앙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도서관 내에서 시각장애인이 점자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택서비스를 통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도서관의 대출 자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10].

경기도립 중앙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점자자료는 점자도서가 주를 이루고 2017년 현재 총 1,387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립 중앙도서관은 점자도서보다도 음성도서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20,210권의 음성도서를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총 1,387권의 점자자료 중 점자악보는 거의 없었으며 바이올린 등 악기교본 몇 권만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2.3 전국 점자도서관 및 복지관

우리나라는 점자도서관은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시각장애인 협회 등 사단법인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도서관은 1969년 설립된 한국 점자도서관으로 사단법인 청송교육문화진흥회가 주체가 되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총 7,400종, 27,000여권의 점자도서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점자악보는 한부도 소장되어 있지 않고 음악을 포함한 예술관련 점자도서들은 일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대구대학교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1958년 점자도서 출판부를 설치하여 점자도서를 출판하였다. 이후 1981년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으로 개관하여 2017년 현재 13,628권의 점자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이 자료들 중에서도 점자악보로 특수화된 자료보다는 음악관련 도서들을 중심으로 점자도서를 확보하고 있었다[13].

시각장애인협회 등 사단법인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점자도서관들의 점자악보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83년 설립된 부산 점자도서관도 2017년 3월 기준 총 4,120종, 9,684권을 소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자악보의 경우 음악적 특수성으로 인해 따로 기증받은 소수의 자료만을 소장하고 자체적으로 점자악보를 제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14]. 전라북도 점자도서관은 1994년 설립되어 총 1,733종 4,666권의 점자도서를 소장하고 있었다. 특별히 점자악보라는 분류 없이 악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음악관련 서적 모두 점자도서로 분류되어 있었다[14]. 2001년 세워진 경기도 시각장애인도서관은 2017년 현재 5,029권의 점자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점자도서관들의 경우 점자악보를 소장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15].

점자도서관과는 별도로 음악적 특성을 특성화하여 점자악보를 제작하고 음악점자 보급하는 기관으로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가 있다. 2012년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이 기관은 전문적인 음악재활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음악활동에 따르는 제약을 극복하고 비시각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다양한 음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음악적 영역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자점자악보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음악점자 강의, 나눔 연주회, 음악재활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2017년 현재 2,037부의 점자악보를 소장하고 있으며 비교적 다양한 음악분야의 악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점자악보의 DB구축의 필요성

4.1 전문적 음악교육을 위한 자료 확보

현재 우리나라 점자 악보의 제작은 개별적으로 점자악보를 의뢰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점자 악보가 필요한 사람이 제작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이나 복지관에서 점자악보의 제작하는데 그 기관의 수는 두 세 개의 점자도서관과 복지관이 전부이다. 또한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며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악보가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점자악보의 제작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자체 제작되는 점자악보에 대한 DB구축하여 제공하여 정확하게 점자 악보의 소재를 파악

한다면 불필요하게 시간을 들여 점자악보를 제작할 필요가 없으며 신속하게 점자악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물론 오늘날 음악교육에 있어서 점자악보 대신 많은 디지털 기기로 만들어진 대체자료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직접 소리를 듣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할 수 있지만 연주의 한계가 있으며 관현악, 합창 등과 같은 높은 단계를 요구하는 음악교육에 있어서는 점자악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체계적이고 보다 수준 높은 음악교육을 위해서는 점자악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4.2 자료의 중복제작 및 정확성 확보

점자악보는 제작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된다. 그러므로 제작된 점자악보에 대해 충분히 시각장애인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점자악보를 제작을 하는 기관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 실로암복지관 산하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등 소수의 기관들이 있다. 또한 사립의 재단이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점자악보를 제작 및 보급하기도 한다[16]. 그러나 이들 기관들과 전국의 점자도서관의 자료들이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중복되어 제작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제작된 점자악보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다.

우선, 점자악보의 정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장애인 대체자료를 볼 때 여러 작곡가들의 성악곡이나 합창곡에 대해 편집자와 작곡가의 정보가 잘못 표기되어 있다. 중앙 성가집으로 수십 곡의 합창곡 중 몇 곡은 점자악보로 제작되면서 편집자의 이름이 작곡가 이름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발견하였다.

심지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전자점자악보 자료들을 볼 때 원래 악보의 출판년도 및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악기를 연주함에 있어 원전의 악보와 편집자에 따라 악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는 꼭 필요하다.

특히 가곡집이나 성가집 등 여러 작품들이 함께 있는 자료들은 구체적인 어떠한 곡들이 몇 곡들이 들어 있는지 정보가 전혀 없었다. 이러한 경우,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점자악보가 다른 기관에서 제작될 수 있다.

4.3 디지털 자료로서 점자악보 공유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점자악보 사용의 원활함과 점

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의 조직화 및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을 위해 디지털화 된 자료에 대한 통합 및 조직에 대한 필요성들은 자주 제기되어 왔다. 2008년 한국시각장애인 도서관 협의회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재원 및 인력의 부족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전국 40여 개소의 도서관을 일일이 검색해야만 시각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17].

그러므로 점자악보를 위해 자치단체별 시각장애인관련 도서관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같은 자치단체에 복수로 존재하는 시각장애인관련 도서관은 통합하여 거점 도서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흡수시켜 예산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도서관과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의 분담을 체계화 하여 자료를 보관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거점도서관에 자료의 검색 등에 대한 기능은 지역단위의 도서관에 두어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18]. 또한 시각장애인복지관은 다양한 이용자집단의 광범위한 요구에 적합한 재활, 문화생활, 교육을 위한 장애인 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다.

5. 결론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법에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목적을 가진다. 특히 장애인들은 국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19]. 장애인들의 예술교육과 문화생활 등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한 자료 및 시설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20]. 더불어 이러한 자료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더 나아가 보다 높은 수준의 예술적 경지나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21].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악보를 숙지하고자 할 때 절대적으로 점자악보가 필요하다. 오늘날 전자점자악보 파일 형식은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정확한 악보를 바탕으로 예술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자점자악보의 DB구축은 시각장애인들의 음악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22]. 더불어 시간과 장소와 같은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든지 시각장애인들이 필요한 악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REFERENCES

- [1] Harari, Y.N., *Sapiens*, translated by Hyunwook Cho, Gimm-Young Publishers, Inc., 2015.
- [2] Parkm Eun-Young, Kwag, Dong-Gi, "The Study on the Market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for Convergence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99-106, 2015.
- [3] The Korea Blind Union, *Education Material for Brailization and Braille Proofreading*, 2013.
- [4] The Korea Blind Union, *Education Material for Brailization and Braille Proofreading*, 2013.
- [5] The Korea Blind Union, *Education Material for Brailization and Braille Proofreading*, 2013.
- [6] Ahn,Y.H., Kim, C.S., "Information Education for Visually Handicapped People at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Proceedings of KFIS Spring Vol. 16, No. 1*, pp. 409-412, 2006.
- [7] Ahn,Y.H., Kim, C.S., "Information Education for Visually Handicapped People at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Proceedings of KFIS Spring Vol. 16, No. 1*, pp. 409-412, 2006.
- [8] The Korea Blind Union, *Education Material for Brailization and Braille Proofreading*, 2013.
- [9] The Korea Blind Union, *Education Material for Brailization and Braille Proofreading*, 2013.
- [10] http://nlid.nl.go.kr/able?act=bookLibraryList_english
- [11] <http://www.gglib.or.kr/>
- [12] Jung, Ji-Young, Lee, Mee-Ae, "Current Status of Digital Braille Music and Policy Proposa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8, pp. 51-57, 2015.

[13] <http://infor.kbll.or.kr/index/index.php>, interview in 2017.4..28.

[14] <http://braille.daegu.ac.kr/main/index.html>, interview in 2017.4..28.

[15] <http://www.angelbook.or.kr/>, interview in 2017.4.28.

[16] <http://www.vipdl.org/>

[17] <http://lib.eyes1004.com/>

[18] Heo, Yong-Hyun, Han, Seok-Hee, Kim, Young-Gon,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Digital Library for the Blind People", Digital Library Vol. 74, pp. 51-68, 2014.

[19] Kim Kyung-Ihl, "A Model of the Influence of IMS oper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1, pp. 1-5, 2016.

[20]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2013.

[21] Kim, Kyung-Ihl, Park, Ji-Young, "Cultural Differences Impact on the ERP System Implementation,"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2, pp. 1-9, 2016.

[22] Woo, Hee-Sun, Yeom, Mi-Ryeong, Jung, Doo-Yong, "An Analysis on the UCC Media for STEAM Integrated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1, pp. 43-48, 2016.

정 지 영(Jung, Ji Young)



- 1995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동대학원 졸업(학사 및 석사)
- 2002년 6월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작곡, 음악이론, 저작권,

대중음악

· E-Mail : jj0842@hansei.ac.kr

이 미 애(Lee, Mee Ae)



- 1985년 2월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문학사)
- 1991년 6월 : 시라큐스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1997년 6월 : 시라큐스대학교 사회과학과(철학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장기요양정책,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E-Mail : meeae@hansei.ac.kr